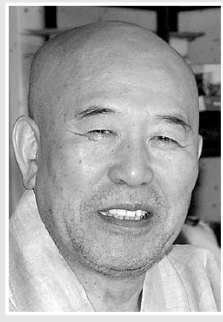


“올바른 간화선 수행법 제시하는 계기”

동화사, 당선대법회 4일부터 12회 개최



인터뷰 주지 지성 스님
무차법회·담선법회·논강 방식 수용
고우·무어·호진 스님 등 대종장 한자리

“담선대법회는 80년대 초 은혜사 주지로 있을 때부터 생각했던 것입니다. 젊은 시절 제방선방을 다니며 느꼈던 문제들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고 수좌들과 토론도 여러번 했었습니다. 많은 스님들이 수행과정에서 부딪치는 문제들에 대해 서로가 공감하면서도 결국은 지대방 이야기로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제도적인 문제는 혼자서는 것이 아니었

지요.”
9월 4일부터 11월 20일까지 매주 토요일(오후 2시)마다 12차례에 걸쳐 ‘참선(간화선)수행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하는 대작불사 ‘담선대법회’를 기획하고 준비한 조계종 제9교구본사 동화사 주지 지성 스님은 담선 대법회 개최 취지를 묻자 이렇게 20년 전 이야기로 말문을 열었다.

대구 동화사로 출가한 지성 스님은 동화사 주지로 부임하자마자 2002년 백교좌 법회와 2003년 화엄논강을 개최했다. 그동안 수행정진하면서 배우고 느꼈던 모든 것 출가 본사에서 회향하겠다는 원력 때문이었다.

스님은 담선법회의 준비과정이 순탄하지는 않았다고 토로했다. “우리의 선에는 ‘사교입선’이라는 주장도 있고, ‘불입문자’, ‘직지인심 견성성불’이라는 주장도 있었지요.” 선의 이런 특성으로 처음 ‘선논강’을 준비했던 스님은 ‘선은 논 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부딪힘에 부딪혔다. 그래서 도입하게 된 것이 고려시대 불일보조 지눌국사가 참여했다는 담선대법회다.

담선대법회는 형식에 있어 무차법회와 담선법회, 논강의 맥을 계승한 것이다. 논주와 논사가 발제와 논평을 맡는 점에서는 논강의 형식을, ‘직지인심 견성성불’의 종언을 드러내는 지혜계발의 장이라는 점에서는 담선법회의 모양을,

누구나 진리의 법연에 차별 없이 동참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무차법회의 양식을 수용한 것이다.

스님은 “수십년 선 수행만을 해온 스님들은 해는 밝으나 눈에 약하고 또 교학만을 공부한 학자는 선을 모르기에 때문에 논주와 논사, 사회자 섭외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털어놨다. 고심 끝에 우리나라 대표적인 간화선 종장 고우, 무어, 정광, 지현 스님과 선학에 권위있는 성본, 월암 스님 근본불교에 전문 식견을 겸비한 호진 스님 등을 논주로, 제방에서 간화선을 실천하고 있는 선방스님들을 발탁하며 보현문화관을 개원했다. 개관식을 겸비한 호진 스님 등을 논주로, 제방에서 간화선을 실천하고 있는 선방스님들을 발탁하며 보현문화관을 개원했다. 개관식은 8월 24일 동화사 주지 지성 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됐다.

스님은 “담선대법회를 통해 간화선이 정말 최고의 수행법으로 마땅한지, 21세기 미래를 위한 대안사상으로 적합한지를 밝혀 한국불교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간화선 수행체제를 드러내 올바른 간화선 수행법을 제시할 수 있길 바란다”고 희망했다. (053)982-0101

대구=배지선 기자 jisun@buddhapia.com

“지역민의 푸근한 쉼터로 ...”

대구 보현사 문화관 개관



대구지역의 불교전문도서관 역할을 담당할 보현문화관의 개관식 모습.

1만 3천여권 도서 보유

대구에서 가장 변화한 중심 반월당에 위치한 보현사(주지 원일)가 보현문화관을 개관하면서 시민들 속으로 다가서고 있다.

동화사 직할포교당 보현사가 최근 사찰 주변환경을 정비하고 신도조직을 재구성하는 등 대구시 제일 포교당으로의 쇄신을 다짐하며 보현문화관을 개원했다. 개관식은 8월 24일 동화사 주지 지성 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됐다.

이번에 새롭게 마련한 보현 문화관은 방치되었던 보현사 내의 50평 지하 공간을

활용한 것으로 차를 끓여 마시는 탕비실과 어린이 학생들의 시청각 법회를 위한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했다. 보현문화관 최고의 자랑은 무엇보다도 불교전문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이다. 보현사는 문화관 중앙에 부처님을 모셔두고, 벽면을 따라 원시불교부터 선, 아록, 불교사, 계율학, 비교종교학, 어린이 불서 등 1만 3천여 권의 도서를 비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

보현문화관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일반인들에게 개방되며, 다음달 초부터는 다도와 가야금, 사경교실 등 주1회의 다양한 교양강좌가 개설될 예정이다. (053)431-5400 배지선 기자

경내에 오작교 놓고 공연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모습을 춤으로 형상화한 공연.

부산 삼광사 칠석예술제 개최 불교·대중 만남의 장 펼쳐

8월 22일, 삼광사(주지 도원)에서는 칠석 명절을 기념하는 감동적인 칠석예술제가 열렸다.

이날 삼광사의 칠석예술제는 일년에 한번만 열리는 견우와 직녀의 만남처럼 가족과 가족이 하나되고, 신도와 신도, 지역과 나라가 하나로 만나길 기원하는 뜻 깊은 의미를 담아 진행됐다.

칠석예술제가 진행되는 동안, 줄곧 비가 내렸지만 참여 대중들은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차분하게 행사를 진행했다.

삼광사 주지 도원 스님은 비속에서 낭독한 고불문을 통해 “오늘의 이 법연을 계기로 가족 사랑의 메시지가 우리 시민 모두의 가슴속에 피어올라 따뜻하고 활기 넘치는 부산이 되고 나아가 APEC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는데 마음을 모을 수 있길 발원한다”고 말했다.

법종 타종, 범고, 한국무용 현화무, 헌등에 이어 윤덕 총무원장의 법어가 이어졌다. 스님은 법어를 통해 “불가의 명절인 칠석을 현대적으로 재조명하는 칠석예술제가 불교와 문화가 만나고 불교와 대중이 만나는 장으로 승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칠석제는 대웅전과 대웅전 앞 마당을 이어 설치된 오작교를 통해 삼광사 꽃꽂이회와 현화, 삼광차문화연구회와 헌다가 펼쳐졌으며 한국무용, 테너 김화정씨의 정산은 나를 보고 독창, 현악 4중주, 트럼펫 색소폰 합주, 삼광사 화엄합창단의 합창 등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졌다.

천미희 기자

“모국을 선물하러 왔어요”



프랑스 한국인양아들이 부산 범어사에 모여 연꽃 만들기 등을 통한 모국문화체험을 하고 있다.

佛 한국입양아, 템플스테이 범어사에서 전통문화체험

“아이들이 태어난 이곳 한국의 전통문화를 경험시켜 주고 싶어 범어사에 왔습니다.”

8월 21~22일 프랑스인 피에르 씨는 자신이 입양한 한국 아이들을 위해 범어사 템플스테이에 참가했다. 이날 범어사 휴휴정사엔 피에르 씨의 두 딸 마리와 사르프를 비롯 프랑스로 입양됐던 한국 입양아들과 프랑스 부모, 입술사 등 50여명이 찾아왔

다. 참가자 대부분이 기독교인이었지만 한국 전통 문화를 경험해 보기 위해 범어사를 찾은 것이다.

처음에 종교적인 이유로 절하기, 법복 입기 등에 난색을 보였던 이들은 이내 법복으로 갈아 입고 진지하게 템플스테이에 임했다. 연꽃 만들기, 탑돌이, 참선, 발우공양, 불무도 배우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아이들과 부모들은 서로 손찌끼만 종이기에 연을 붙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완성된 곶 등에 촛불을 켜고 어두워진 도랑의 탑을 돌며 이들은 무엇을 소원했을까?

“아이들은 우리에게 커다란 선물입니다. 이번엔 우리가 아이들에게 모국을 선물로 주려고 왔습니다. 우리아이들이 모국의 문화를 배우고 또 나누어주는 부모님도 만나서 많이 행복해 했으면 좋겠습니다.” 프랑스 부모들의 극진한 사랑 때문일까? 곶등을 든 아이들의 표정은 밝아 보였다.

이들은 인솔했던 윤숙희 목사는 “입양아들이 이번 템플스테이를 통해 한국의 전통문화를 많이 배웠다”고 말했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임원 및 이사진 통합 개편

부산불교신도회·불심홍법원

재단법인 불심홍법원은 8월 20일 이사회를 열고 부산불교신도회 공명수 회장을 법인 신임 이사장으로 선출했다. 류진수 현 이사장은 이사로 선출됐다.

불심홍법원은 류진수 이사장 체제는 인수팀 성격의 것으로 공명수 회장에게 이사장직을 물려주는 것이 수순이라고 판단, 이 같은 절차를 밟게 됐으며 8월 21일, 22일 열린 신도회 수련회에서 결과를 발표했다. 하도명화 보살이 부산불교신도회에 기탁한 30억원의 관리를 둘러싸고 부산불교신도회(회장 공명수)와 재단법인 불심홍법원(이사장 류진수)로 양분화 될 조짐을 보이던 부산불교신도회가 통합의 첫 단추를 끼운 것이다.

한편 불심홍법원은 8월 19일 열린 부산불교신도회 운영이사회에서 신도회 회장단을 재단법인 임원으로 하기로 결의했다.

천미희 기자

‘참 좋은 유치원’ 기공

대구 영남대학교 관음사(회주 우학)는 8월 23일 대구시 남구 봉곡3동 사찰 옆 공터에서 회주 우학스님과 이신학 남구구청장 등 사부대중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참



좋은 유치원’ 불사 기공식(사진)을 거행하고 본격적 공사에 들어갔다.

영남대학교는 사업비 100여억원을 투입하여 지하 2층, 지상 6층, 연건평 2천240평의 지역 최대규모의 유치원을 지어 2006년 3월에 문을 열 계획이다. 배지선 기자

‘민족정신 다시 일깨우자’ 인각사 일연성사 다례제

일연성사 열반 715주기 추모 다례제가 8월 23일 삼국유사 집필지인 경북 군위 인각사에서 거행됐다.

은혜사 주지 법타 스님과 박영연 군위군수 등 사부대중 200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거행된 이날 행사는 청백 다례원 불자들의 육법공양을 시작으로 일연성사 연보소개, 봉행사, 성탄사, 추모사 등으로 이어졌다.

법타 스님은 성탄사를 통해 “일연성사의 민족정신을 다시 한번 크게 일깨워야 한다”고 당부했다. 배지선 기자

대한불교 대승종

종도 연수 교육

대한불교대승종은 2004년도 정기 연수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전 종도는 무우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일 시 : 2548년 9월 18일 ~ 9월 20일
- 입 재 : 2548년 9월 18일 오후 3시 (단, 당일 오후 2시까지 등록 완료 바람)
- 대 상 : 대한불교대승종 전 종도
- 준비물 : 가사, 장삼, 발우, 목탁, 요령, 필기구
- 장 소 : 다보수련원(043-833-7789) 충북 괴산군 청전면 삼송리 392-10
- 접수 및 문의 : 대한불교 대승종 교육원(02-2279-9035) 대한불교 대승종 총무원(02-2678-2447) 각 지역 종무원

2548년 8월 25일

대한불교 대승종 교육원장 도일

천년고찰 노고산 흥국사 불교교양대학 금강경 강의

금강경은 조계종의 소의경전(所依經典)으로서 금강석과 같이 견고한 반야지혜의 보검으로 모든 허상과 집착을 타파(打破)하여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성취하도록 이끌어 주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흥국사에서는 아래와 같이 금강경을 강의하오니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 ▶ 개강일시 : 2004년 9월 7일(화) 오전 11시 30분
- ▶ 강의시간 : 매주 화요일 오전 11시 30분 ~ 오후 1시
- ▶ 강의기간 : 2004년 9월 7일(화) ~ 11월 30일(화) 3개월 과정
- ▶ 강 사 : 흥국사 주지 (대오)
- ▶ 수 강 료 : 3만원(교재비 포함)
- ▶ 문의 및 접수 : 02-381-7970 종무소

대한불교조계종 약사기도도량 천년고찰 흥국사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203번지 / http://www.heungguksa.or.kr

주말 템플스테이 안내

흥국사는 수도원 템플스테이 운영사무소 매월 첫째, 셋째 토요일 오후 3시부터 일요일 오전 10시까지 주말 템플스테이를 실시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홈페이지 참조)

약도

